

보도일시 (인터넷) 2023. 11. 28.(화) 11:00,  
(지면) 2023. 11. 29.(수) 조간

배포 2023. 11. 28.(화) 06:00

# ‘꽃게 청소부’ 포스터 등 제9회 연안관리 홍보 공모전 수상작 발표

- 포스터 그림 및 패각 손수제작품(DIY) 공모, 수상작 총 12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9일(수) 한국연안협회(서울 송파구)에서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연안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 초등학생 대상의 포스터 그리기, 전 국민 대상의 패각 손수제작품(DIY) 등 2개 부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고, 사전 심사, 전문가 심사, 국민선호도 투표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등 총 12점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하였다.

포스터 그리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예성 학생(세종시 해밀초)의 ‘꽃게 청소부’ 작품은 꽃게가 집게발로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을 묘사하여 소중한 우리 연안을 보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패각 손수제작품(DIY)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수아 학생(서울시 천왕중)의 ‘무제’ 작품은 패각을 활용하여 연안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깨끗한 바다와 더러워진 바다를 대비시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이, 우수상 이하 수상자에게는 한국연안협회 회장상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은 우리 연안이 직면한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연안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더 깨끗하고 건강한 연안을 조성하는 데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9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수상작과 자세한 작품 설명은 ‘연안교육센터 누리집(coast.mof.go.kr/educa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인경 (044-200-5260)
	해양공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권형식 (044-200-5261)

## 참고

## 수상 작품

### □ 포스터 그리기 부문(6점)

상격	수상작품	제목 및 설명	수상자
최우수상		<p><b>&lt;꽃게 청소부&gt;</b></p> <p>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고 즐기는 우리 연안, 신나게 즐기만 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보존하지 않으면 곧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꽃게가 집게발로 쓰레기를 치우는 그림을 그렸지만 현실에선 우리 모두 힘을 다해 아껴줘야 해요</p>	해밀 초등학교  최예성
우수상		<p><b>&lt;소중한 갯벌 함께해요&gt;</b></p> <p>지구와 자연이 만나 갯벌에서 나무를 심고 갯벌에 사는 여러 생물들과 다함께 즐겨워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망둥어, 게, 갯지렁이, 도요새, 조개 등 다양한 친구들이 살아 숨쉬는 갯벌에서 지구와, 자연, 그리고 우리들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p>	도성 초등학교  김나현
우수상	<p>해수면상승이 계속되면. . .</p>	<p><b>&lt;해수면 상승이 계속되면..!&gt;</b></p> <p>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연안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표현하였음</p>	샘마루 초등학교  김지우

장려상		<p>&lt;생태계 안식처 자연의 휴식처&gt; 연안은 바다가 오염됐을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않으면 해양오염으로 생태계는 파괴되고 우리 역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연안은 생태계의 안식처이며 자연의 휴식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p>	<p>나원 초등학교</p> <p>정우영</p>
장려상		<p>&lt;바람과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상&gt; 사람들이 연안에서 갯벌체험도 하고 바다 쓰레기도 줍고 바다생물들도 도와주고 배를 타고 바다 구경도 하며 다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표현했습니다.</p>	<p>탕정 초등학교</p> <p>이하율</p>
장려상	 <p>물고기의 공기는 물입니다</p>	<p>&lt;물고기의 공기는 물입니다&gt; 사람이 공기로 숨을 쉬고, 물고기는 물로 숨을 쉬는데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는 숨을 쉴 수 없어 죽게된다는 것을 표현함</p>	<p>샘마루 초등학교</p> <p>정진훈</p>



## □ 패각 DIY 부문(6점)

상격	수상작품	제목 및 설명	수상자
최우수상		<p><b>&lt;무 제&gt;</b>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연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바다의 문제가 있다는걸 보여주기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바다의 면적은 점점 커지고 있고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셀 수 없을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품을 왼쪽에서 본다면 옛날의 바다가 있습니다. 더럽혀지기 전 깨끗하고 푸르르게 빛나던 바다를 표현했습니다. 오른쪽에서 작품을 보신다면 이제껏 더럽혀진 또 더욱 더럽혀질 검게변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른쪽의 바다가 더욱 더러워지지않도록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많은분들이 저의 작품을 보고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p>	조수아
우수상		<p><b>&lt;잘자, 좋은 꿈꿔&gt;</b>  지난 여름 바닷가에서 아이들과 조개껍데기, 소라, 돌맹이, 유리조각들을 주으며 그림같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연안을 앞마당처럼 누비며 예쁜 조각들을 찾을때마다 보물을 찾은 것 마냥 기뻐한다. 요즘 크느냐 꿈을 많이 꾸는 아이들을 위해 패각을 이용해 드림캐처를 만들기로 했다. 소라들이 부딪쳐 째랑대고, 유리조각이 햇빛에 반사해 눈부시다. 드림캐처를 걸어두고, 지난 여름바다를 추억하며,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 평온하다.</p>	인지은
우수상		<p><b>&lt;조개반지&gt;</b>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서해안으로 여행을 갔다가 먹었던 바지락 칼국수의 패각을 활용하여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질 수 있었던 패각에 파도치는 연안의 모습을 그려 넣고, 활짝 핀 꽃도 만들어 올리니 패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네요^^ 나만의 추억이 담긴 조개 반지! 많은 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p>	오소영

<p>장려상</p>		<p><b>&lt;고래의 꿈&gt;</b>          우리 연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지락 패각에 흔한 미술 재료인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하고 자석을 붙여          만든 DIY 패각 자석입니다. 식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바지락과 흔하게          사용되는 미술재료들로 누구나 쉽게,          가정에서도 만들 수 있는 작품으로          패각 재활용에 접근성을 높이고 연안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취시키는 활동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해당 작품은          '고래의 꿈'이라는 명으로 맑은 바다와          연안을 연상시키는 푸른빛과 밤하늘에          별이 수놓아져있는 모습으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들로          머지않아 우리 연안에 펼쳐질 깨끗한          자연환경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p>	<p>강유진</p>
<p>장려상</p>		<p><b>&lt;生&gt;</b>          이만큼 더러워지고 무더졌다. 생명체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적응하고, 인간이          뿌린 모든 것들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간다. 깨닫기에 그 삶이 너무나도          짧은 탓인가 모든 것을 포용하나          거쳐갈 뿐. 나의 시간은 변화했다.          너희의 시간은 어떠할까. 해녀가          아름다운 산호 바다 위에서 텅 빈          테왁과 함께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          오른 편엔 바다 새가 앉아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얼굴들엔 표정이 없습니다.          이는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음미하며 각자의 감정과 표정을          대입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연안 해역의 주위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 언뜻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시 보면 여러 상징적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와          그 쓰레기로 모자를 쓴 성게, 아열대          종의 화려한 물고기들과 사라져 가는          몇 없는 해초, 아름다운 산호들로          하여금 오염과, 아열대 화 되어가는          연안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바닥에          크기와 색이 제각각인 구슬들이 깔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구슬들은</p>	<p>황원희</p>

		<p>물고기 뱃속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구슬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작품 외곽에는 그물이 둘러져 있습니다. 어업으로 인한 폐그물입니다. 해양 오염의 지분이 높기에 작품 외곽에 둘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거슬리지는 않지만 오염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을 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지나치면 아름다운 작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들의 영향이 미친 바다와 미래의 불투명함을 담았습니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할 수 없는 연안의 아열대 화와 오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p>	
<p>장려상</p>		<p><b>&lt;바닷속의 숨겨진 보물&gt;</b></p> <p>갯벌은 바닷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물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갯벌 역시 '썰물'이라는 시간 때에 맞추어야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갯벌에는 여러 동·식물들이 살고 있으며 어류에게는 보금자리를, 새들에게는 휴식처를, 어민들에게는 생활 터전을 제공해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이런 '갯벌'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갯벌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각과 지점토를 사용하여 다양한 생물(조개, 고둥, 소라, 별불가사리, 도둑게, 버들 갯지렁이, 주꾸미, 물새, 칠면조 등)들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갯벌을 한 폭의 그림처럼 담은 모빌 형태로 만들어서 직접 바다로 나가지 않아도 도시 속에서 작은 갯벌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빌은 벽에 걸어두었을 때 예쁜 인테리어 소품이 되기도 하지만 갯벌이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학습장으로 이용되는 만큼 갯벌에 이렇게 많은 생물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p>	<p>이효정</p>